

[부제 : 팔로팔로미]

선배생존자가 한마디로 알려주는 무인도섬 생존 꿀팁!

- 1_ 팔라완 공항, 마닐라 공항에 심카드 파는 곳이 있어요
(팔라완이 마닐라 보다 싼어요, 글로브 통신사기준) - 팔라완에 여유 있게 도착하시는
분들은 팔라완 공항에서 하셔도 될듯 합니다. 팔라완, 마닐라 공항에서는 둘 다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 2_ 필리핀맥도날드 줄리비에선 하와이안 버거를 드셔보세요, 물론 더블패티로
(삼천원으로 하와이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마닐라 공항 줄리비는 없어요
- 3_ 침낭이나 텐트를 챙길 여력이 안된다면, 해먹을 준비 해보세요.
(해변에 널부러져 자는것보단 야자수 아래 비와 햇빛을 막아주는 훌륭한 잠자리가 됩니다)
무인도에 담요는 많이 있어요.
- 4_ 카메라는 DSLR보단 고프로 혹은 방수카메라가 짱입니다
(가끔 모래와 해풍 소금기로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 5_ 수영을 잘 할줄 모르신다면 수중랜턴이 크게 필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랜턴은 꼭 꼭 꼭 챙겨 오세요)
- 6_ 맥가이버칼을 준비 해 주세요
(내 숟가락과 젓가락은 내가 직접 만든다)
- 7_ 집에서 안쓰는 장난감 하나 가져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현지 스텝의 유치원생 남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와 빨리 친해 질 수 있어요)
8. 불피울땐 스노쿨링용 물안경이 최고입니다
(연기앞에선 장사없습니다)
9. 마닐라에서 택시를 탈 때는 꼭 'grab'을 이용하세요, 덤탱이 안당합니다.
우리나라의 카카오 택시 같은 것인데요(필수 필수 필수!)
어플 다운!
10. 팔라완에서 직항을 타고 나갈 때는 공항세 700페소를 내야 합니다.
마닐라 경유로 나가는 사람들은 공항세가 없어요.
11. 선크림은 로션타입보단 스틱타입이나 스프레이 타입이 좋아요
(로션타입은 손에 묻은 모래때문에 바르기가 귀찮아요 / 특히 스프레이가 짱!!)
12. 경유로 오시는 분들은 마닐라도 좋지만 세부를 경유하면 더 놀다? 갈 수 있어요.
13. 아쿠아슈즈 보다는 사실 슬리퍼가 좋은듯 합니다.(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크록스 짭
파는데 조아호 !!!)

공감 +1

14. 팔라완 맛집 : 키나부츠(악어고기 등 인기 있는 고급 현지식), 줄리비(간편 햄버거 패스트푸드), 포 사이공(쌀국수), 키나부츠(현지식 닭고기 맛집), 강남(한식당), artisans(스테이크 강추)
15. 김장봉투 완전 필요(비가 갑자기 올 때가 있을 때 가방 방수에 도움, 비가 오면 머리랑 팔 뚫어서 거꾸로 쓰면 비웃 ok, 추울 때 덮거나 입어도 도움)
16. 불빛이 없어 렌턴이 필요하고 밤에 작살로 고기를 잡으실 분들은 수중렌턴을 꼭 챙기세요(최소 7만원 이상의 수중렌턴이 고장이 안나고 오래 갑니다)
17. 우비는 꼭 챙겨야 할것 같아요, 비올때 뿐만 아니라 바닷가 들어갔다 나와서 입고 있으면 체온 유지가 잘 됩니다. (너무 따뜻해요)
18. 불피울때는 스피드보다는 비비는 사람이 온몸에 체중을 실어서 꼭 누르면서 하는게 관건이에요
19. 작살로 물고기 사냥할때는 허공에 물고기한테 쏘는게 아니고 물고기를 관통해서 바위나 땅에 꽂히게끔 쏘야지 잘 잡힙니다
20. 손질한 생선은 항상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옆에서 개들이 물고 뿔수도 있어요
21. 여권을 분실한 경우 마닐라로 가야해요.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이민국 둘 다 방문해야합니다. 주말의 경우 대사관 긴급전화와 항공사 입국확인서를 활용하시면 되어요.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_평일 9시-16시
McKinley Town Center, 122 Upper McKinley Rd, Fort Bonifacio, Taguig, 1634 Metro Manila, 필리핀 /소요시간 30분-1시간
■대사관에서 가장 가까운 이민국_평일 8-17시
SM Aura Tower, McKinley Pkwy, Metro Manila, 필리핀 /소요시간 1시간-1시간반
22. 어차피 편하게 못자니까 편히 자겠다고 두꺼운 담요나 두꺼운이불 가져오지마세여. 냄새나는 빨래만 습니다. 이왕 무인도에 온거 모래 위에서 자보는 경험도 좋잖아요.
23. 에어 아시아 팔라완에서 마닐라행 수하물비를 공항에서 추가하면 800페소 였습니다.
24. 팔라완 공항에서 게이트까지 수속 밟는데 30분도 안 걸렸습니다(안전하게 넉넉하게 가시는게 맞지만요). 직접 수동으로(?) 검사하는건 없었습니다. 그때그때 다룰지도 모르겠습니다.
25. 팔라완 공항 게이트로 들어가도 간단한 기념품샵, 카페들이 있습니다. 페소를 거기서 터셔도 좋고, 마닐라 경유하실 때 쓰셔도 좋습니다.
26. 페소는 작은 단위로 갖고 있는게 좋습니다. 현지인들이 잔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7. 머리는 계곡물에 감는게 최고예요. 어차피 무인도 수도가 계곡물임. 허리 불편하게 수도 쓰지 말고 계곡에서 감아요 짱짱

28. 달러 -> 페소 환전하실때 환전소에서 1,000페소 단위로 페소를 주고 나머지 금액들은 작은 단위로 페소환전을 해줄텐데 1,000페소를 500페소 단위로 바꿔달라고 말하시고 환전을 하세요

500페소 단위로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잔돈 만들기가 수월해요 (mall 내에 샵 아님이상 1,000페소 처리하기 어려워요ππ / 기본 트라이시클 비용 20페소~100페소)

29. 팔라완 공항게이트 들어간 후 카드 사용하실때 비자&마스터 카드만 사용 가능해요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카드 사용불가 했습니다ππ

30. 팔라완 환전은 여권필수! 로빈슨 2층 환전소는 여권없이도 환전이 가능하나 일찍가세요 혹은 급하면 강남레스토랑(팔라완에 있는 한식당)에서도 가능 감사했어요 강남언니.(?)=

31. 세부퍼시픽항공 은 정말 추워요 반바지나 치마면 추리닝바지라도 챙기세요. 어쨌든 국내선 비행기는 실내가 춥습니다.

32. 장비가 많으신 분들은 꼭 여행자보험 가입하고 가세요 . 이카루스 자체에 가입된 보험은 상해쪽만 보장 가능합니다. (여행자보험은 1건당 휴대품손해 부분 20만원 한도) 여러개 가입가능하고 중복보장 가능합니다.

33. 핸드폰 특히 아이폰은 방수가 된다고 알려져있지만 바닷물은 안됩니다. 수영장에서는 가능했지만 바닷물 닿는순간 사망선고받고 데이터 다날아갑니다. 아이클라우드 수시 백업은 필수

34. 팔라완 공항에도 게이트 안쪽에 마사지샵이 있습니다.

35. 세부퍼시픽 기내식은 맛이 없어요. 특히 찰진밥을 좋아하면 피곤할땐 더 모래같음. 경험삼아도 먹지마세요. = 귀국시 신라면이 먹고 싶다는 페소남기세요 신라면150 콜라70 페소. 원화가능 10000 주니 4000원 거슬려줌. 달러가능. 카드불가

36. PP카드를 이용해서 공항라운지에 가고싶다면,푸에르토공항에는 라운지가 없어서 인천 가는 길 마닐라 경유시에만 사용이 가능해요. 단, 2018년 기준 1터미널과 3터미널에만 PP카드 이용가능 라운지가 있으니 해당 터미널 이용하는 항공사 비행기를 타는게 좋아요.

37. 혹시라도 무인도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나온다면 기다리고 있는 개나 고양이에게 주거나 불에 태우면 됩니다. 무인도에 있는 개고양이는 잡식이라 생선가시도 닭뼈도 잘 먹어요. 개와 고양이는 혹시나 산에서 뱀이 내려올 것을 대비!

38. 스노우쿨에 습기가 차면 수영 중 앞이 안보일수있어요. 안쪽에 침을 바르면 습기방지가 가능하답니다^^ 치약으로도 가능!

39. 사진을 찍을 때에는 역시 깔맞춤이 잘 나와요! 포인트컬러나 아이템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뽐뽐해봐요!

40. 무인도에서 쪼리 별로 안좋음. 쪼리 신었다가 엄지랑 두번째 발가락 사이에 빨갈게 되고 상처생겨서 엄청 아팠음. 그리고 아쿠아슈즈도 별로임 왜냐하면 아쿠아슈즈 안에 모래가 자갈자갈 들어가서 찢찢하고 물로 씻어도 또 들어가고 나중엔 진짜 허허헛하하하하하

41. 똥을 많이 싸는 사람이라면 마이비데를 꼭 가져갈 것. 쾌적한 마무리를 할 수 있음.

42. PPS에서 엘니도 가실 분들은 Airswift이용하시면 멋진 항공뷰를 볼 수 있습니다(하루 1대 있음.가격은 5200페소정도. 18년기준)

미니 밴과 가격차이는 많이 나지만

미니 밴은 거의 6시간 걸려요. 비행기는 40분이면 가니까 편안함+하루 노는 시간 버는 걸 생각하면 비행기 추천

수하물은 사전 10kg까지 결제되고 초과는 현장에서 결제합니다. 초과 수하물 비용이 비싸니까 기내용 플라스틱 백을 하나 더 챙기세요.

엘니도에서 마닐라행 비행기 타고 마닐라에서 인천행 비행기 타면 편하게 올 수 있습니다.(하루 5대 있음)

43. 엘니도에서 마닐라 공항 환승

국내선은 4터미널로 도착합니다.

국제선은 1터미널로 가는데

택시 15분 걸립니다.

터미널 이동방법은

1. 무료 셔틀

1시간에 한 대 정도있습니다.

행선 터미널마다 버스 색이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1 터미널은 흰색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2. 공항 택시

밴 사이즈 택시

요금이 조금 더 비싸지만 줄이 짧음

3. 미터 택시

요금이 싸지만 줄이 길다

보통 4터미널에서 1터미널까지 150페소 나옵니다

44. PPS 트라이시클 비용

지도 보고 10분 거리는 50페소가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45. PPS에서 한국 라면 사실 분들은 PICK N GO라는 가게 가시면 살 수 있어요

46. 코론 섬

코론 섬은 엘니도에서도 배로 3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엘니도에서 코론 섬은 당일 치기가 어려워요

하루 숙박하거나
아니면 엘니도에서 놀고, 코론으로 이동해서 놀다가
코론에서 바로 비행기 타고 마닐라 가는 게 좋습니다.

코론은 일본 잠수함 가라앉은 장소에서 스킨스쿠버 하는 게 그렇게 좋다고 추천 받았어요

47. 엘 니도 투어

Abcd 4개의 코스가 있습니다(a, c가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코스 시간은 다 같아요. 오전 9시~오후4시

코스별로 가격은 다릅니다

1200~1400페소(1인)

이틀 연속 투어 가는 건 체력 부담이 굉장히 크니 잘 결정해야합니다

48. 무인도 출발 당일

아침 출발 시간이 일러서 조식을 못 먹는다

숙소에서 나오면서 과자라도 주워먹고 출발하는 걸 추천

49. 햇볕이 따가우니까 모자는 꼭 챙겨 쓰는 것을 추천해요. 안쓰고 돌아다니다가 두피까지 타서 한국에 왔을때 껍질이 벗겨질 수 있어요.

50. 한국에서 랜턴을 가져오지 못했다면 로빈슨 2층에 일렉트로닉샵에 가면 저렴하게 구매 가능해요(수중랜턴 말고 일반랜턴). 정확하지는 않지만 3-400페소+건전지값 정도였던것같아요.

51. 로빈슨 2층에 있는 부코하우스 집에서 파는 부코쉐이크 맛있어요. 강추!

52. SM몰 커피빈 아이스라떼는 노맛입니다.

53. 무인도에서 잘때 발꼬락을 사수하세요.벌레 물리지 않게. 귀국해서 엄청간지러워요. 다른덴 참을만 함.

54. 무인도 가기전에 (무인도에 갈 때 당신이 가져가야 할 것) 읽어보고 가면 좋아요. 난 다녀와서 복습했지만..대신 뼈저리게 각인되긴 함.

ㅎ

55. 여유가 있는 분들은 팔라완에는 일정 시작 하루나 이틀 전, 일정 후 하루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오면 좋을것 같아요, 새벽 비행기 타고 바로 무인도에 가면 약간 피곤!

56. 팔라완에서 먼저 들어와 자유시간이 있다면!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를! 신청은 대장님께 고고고

[정리]

1.지하강 투어 (60달러)

2. 망그로브 리버크루즈(50달러)

3. 사방비치 쥘라인(현장신청)

4. 시티투어 : (35달러)

5. 돌고래 와칭 투어 : (50달러)

6. 반딧불 투어 : (40달러)

7. 기타 : 나비농장, 악어농장, 원주민마을, 비엔비치, 베이웁(저녁 포장마차), 야외 개방형 교도소 투어, 교도소 안 발사안 계곡 등

1.지하강 투어 : 제주와 더불어 세계7대 자연경관이자 유네스코 자연경관. 장장 8km에 이르는 긴 해식 동굴의 일부(2km)를 배를 타고 들어가볼 수 있다. 하루 관람객 1000명으로 제한. 오디오 기계로 한국어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오전 출발, 오후 4시경 시내 도착, 호텔 픽업, 중식 포함 60달러)

2. 망그로브 리버크루즈(지하강 투어 선택 시 추가 가능) : 배를 타고 망그로브 숲이 잘 보존된 곳으로 간다. 가장 바다에 가까운 곳에 빨 같은 곳을 형성하여 열기설기 뿌리를 내린 망그로브 숲은 일대 모두가 보호지역이다. 현지식으로 중식을 먹고 줄낙시 체험을 할 수 있다.

(3시간 소요, 중식 포함 50달러)

3. 사방비치 쥘라인(지하강 투어 선택 시 추가 가능) : 사방 비치가 내려다보이는 곳부터 800미터에 이르는 해변 위를 쥘라인으로 내려간다. 지하강만 보고 오기엔 아쉽다는 분들이 강추!(1시간 소요, 지하강 현장에서 신청 그러나 그날 같이다 나는 사람들의 일정에 따라 못탈수도 있음)

4. 시티투어 : 팔라완 시내 구석구석을 다닌다. 원시 부족들이 있는 원주민 마을과 악어농장, 함평 나비축제가 처음 시작할 때 나비를 잡아갔던 나비농장과 더불어 관광객들의 출입이 가능한 오픈형 교도소, 아름다운 공원의 베이커스 힐 등을 가볼 수 있다.(3-4시간 소요, 35달러)

5. 돌고래 와칭 투어 : 푸에르토 프린세사 인근 바다에 서식하는 돌고래들을 보러 간다. 이른 아침 먹이를 찾으러 가는 이들의 경로를 쫓아 수 백 마리의 돌고래들을 볼 수 있다. 4월부터 11월 사이, 아침 6시부터 시작한다.(4-5시간 소요, 50달러, 시즌이 있어요!!9월에서 11월 사이 적기)

6. 반딧불 투어 : 어둑어둑 해질 무렵 보트를 타고 강을 따라 양 옆으로 늘어서 있는 망그로브 숲을 거슬러 올라간다. 밤이 되면 수 많은 반딧불과 청정 지역에서 보는 늘어진 별들에 이카루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투어. (오후4시경 출발, 저녁 포함, 2시간-3시간 소요, 40달러)

*호핑투어는 무인도에서 실컷 하기에 빠져있어요!

57. 팔라완에 있는 한식당 : 빼네다 스트리트 에 있는 강남 식당
ana플라자에 있는 서울 식당

58. 팔라완 대형 쇼핑몰 : SM몰, 로빈슨

59. 팔라완 택시인 트라이시클(오토바이같은, 툭툭이)은 어지간한 거리는 30페소, 공항에서 시내까지도 100페소면 충분합니다. 돈은 타기 전 흥정할 필요도 없이 최소 20페소, 많아도 50페소면 시내 내에서는 다 갈 수 있습니다.

60. 마사지 꼭 받으세요, 완전 추천, 피로 다 풀어잡고 오시길

61. 팔라완 왕복 비행기표를 혼자 끊기 힘들다면? 종합여행사 (주) 이엘 이유미 실장
010-5767-2185

62. 마닐라 경유 팔라완을 오시는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마닐라는 공항이 4개이어서 인천에서 마닐라에 도착 후 항공사에 따라 터미널을 이동해야 하기도 합니다. 터미널 이동 시에는 무료 셔틀이 있고 텀이 길다면 택시를 이용해도 됩니다. 택시는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랩 택시 이용하면 좋아요! 덤탱이 없습니다.

63. 식량 준비, 불 피우기, 텐트 설치 등 일의 분배가 균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은 다양한 경험을 직접 내가 해본다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시고, 주변에서 좀 더 수고하시는 분을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국제선]

에어아시아- 터미널3

세부퍼시픽-터미널3

필리핀에어라인- 터미널 2

제주항공 아시이나 대한항공 -터미널1

[국내선]

필리핀에어라인- 터미널3

세부퍼시픽- 터미널3

에어아시아- 터미널4

63. 시간이 된다면 팔라완 간킴에 엘니도에 꼭 가보세요!

64. 무인도 가시기 전에 시간이 된다면 프리다이빙 기초 과정을 듣고 가세요! 바다에서 좀더 자유롭고 무섭지 않아요.

65. 민음사에서 방수책이 출시 되었습니다. 가져가시면 무인도에서 읽을 수 있어요. 종류는 적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가셔도 좋을 듯 합니다. (최근 출시본을 보고 있었으면 좋았을걸 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비와도 읽을 수 있음

66.다이빙 원래하시던 분들은 다이빙컴을 꼭 챙겨가세요. 유용한 방수시계 역할!
야간에는 안전을 위하여(수심확인용) 착용하시되 주간에는 잠시 배위에 빼두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수심이 깊지않아서 자잘한 로그가 꽤 많이 생깁니다.ㅠㅠ

67. 여기까지 그래도 정말 필수 정보 정리

1) 팔라완 미팅 포인트까지 : 경유시 마닐라는 4개의 터미널이 있습니다, 항공사에 맞는 터미널에서 타셔야 하고 때에 따라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동 방법은 공항 터미널간 무료로 이동하는 셔틀버스 또는 **grab** 택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현지 **grab** 어플을 다운 받은 후 목적지와 도착지를 찍으면 우리나라 카카오택시 처럼 택시를 부를 수 있습니다. 공항에 나가면 **grab**이라고 초록색으로 적혀 있는 글씨를 따라가면 직원에게 말하면 불러주기도 합니다. 경찰제 택시여서 덤탱이를 안당합니다

2) 심카드는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면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공항에서 바꾸지 못하셨다면 sm몰 지하1층에 심카드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무인도에서는 인터넷은 안터지지만 종종 낚시를 하거나 인근 섬에 갔을 때는 터지기도 합니다

3) 현지 숙소 및 투어는 미리 알려주세요, 이왕이면 윤승철대장이 추천해주는 호텔에서 머무는 곳에서 지내길 추천!

4) 준비물 중에는 다이소나 마트에서 파는 김장봉투(대), 슬리퍼(아쿠아슈즈 보다는), 일회용 비옷, 긴팔, 여분 옷, 잠수 가능자라면 수중렌턴(밤에 물 속에 들어가서 작살로 고기를 잡을 때 사용합니다), 텐트(있다면), 담요나 덮을 것, 스노쿨 입니다

현지에서의 지급품은 정글도, 하루 1리터의 물, 짧은 오리발, 작살, 낚시도구 입니다

5) 환전 : 달러로 바꿔오시면 현지에서 환전 가능합니다

6) 팔라완 공항에서 시내로 나갈 때는 최대 100페소, 시내에서 시내는 어지간하면 30-50페소면 다 갑니다. 팔라완 시내와 공항은 5분 거리에 불과하고 시내 끝에서 끝은 10분이면 갑니다

7) 현지 맛집 중에는 키나부츠라는 악어고기 및 sigsig 음식을 파는 곳, 포 사이공 이라는 베트남 쌀국수를 파는 곳(실제 베트남 전쟁 때 보트피플이 팔라완에 정착), 까이나토 라는 현지식 닭고기집이 유명합니다. 강남 식당이라는 한식당도 있습니다

8) 물티슈나 손 세정제, 모기퇴치제인 off로션 등은 현지 마트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9) 첫 날 무인도에 아침에 들어가서 마지막날 12시쯤 시내로 나와요. 점심을 먹고 온천을 다 하면 4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첫 날 무인도 들어갈때부터 마지막 날 4시 정도까진 돈을 쓸 일이 하나도 없어요

10) 오토바이 대여: 작은 스쿠터 비용은 24시간동안 600페소이고 빌리는 기간이 길수록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중형 스쿠터 비용은 1000페소 정도입니다.

11) 로빈슨 쇼핑몰과 sm 쇼핑몰을 가보세요~

로빈슨은 롯데마트 느낌이라면 sm은 대형 롯데몰 느낌입니다.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sm 쇼핑몰에 많습니다.

12) 본인이 잘생겼다 생각하면 엄한데 가지마세요 게이들 번호 달라고 조릅니다....